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59
----------	------

발의연월일 : 2024. 8. 27.

발 의 자 : 김선교 · 김성원 · 김소희  
서일준 · 정동만 · 최수진  
구자근 · 김상훈 · 이현승  
김예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해양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1

조, 제61조의2 및 제63조제5호 신설).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중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로 한다.

제5장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u>&lt;신 설&gt;</u>	제61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 -----. <u>제61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63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u>&lt;신 설&gt;</u>	제63조(별칙)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u>